



동물, 로봇 그리고 사람

사람의 사람다움은 소박한 일상, 자연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찾아야

김성재 (사랑의 친구들 회장)

예년도 그랬지만 올봄은 꽃샘추위가 더 차가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존재다움을 말할 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언행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은 생존에 필요한 본능적인 배고픔, 목마름, 종족보존의 성적 욕구는 있지만 더 소유하거나 더 즐기기를 위한 탐욕은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배고픔, 목마름, 성적 욕구 등 생존욕구 충족보다 타자와의 비교에서 더 많은 소유와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인간의 존재다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생존의 필요를 넘어 더 많은 돈과 권력의 소유, 더 많은 쾌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파탄나도록 지식 공부시키는 것도, 국가재정의 1/4이 되는 교육비 투자도 모두 이런 경쟁과 탐욕의 승리자, 소위 출세자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한 야수가 되게 하는 경쟁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과 자연의 생명체와 지구를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제는 인지과학과 로봇공학의 혁명적 발

달로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주요한 일들을 모두 로봇이 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의술도 3D프린터로 사람을 스캔해서 예방로봇과 진료로봇이 맞춤형 의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의 역할은 없어지고, 의사가 하는 일의 중심은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과학자들은 이제는 로봇이 사람보다 더 생각도 많이 하고 지능이 높아져서 공상영화처럼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더욱이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맞춤형 인간, 복제인간이 대량생산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말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종교, 철학, 예술이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답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철학, 예술마저도 돈과 쾌락 추구의 도구로 전락된 현실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로봇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제는 더 많은 소유와 쾌락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과 자연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만 사람의 존재다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니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 더 많겠지만, 사람의 사람다움은 이렇게 소박한 ‘사랑의 친구들’이 되는 삶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에 따뜻한 설날 선물 한바구니 3만원 성금 모아 모두 3,000 바구니 만들어

“할머니께서는 작년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위해 하루 하루를 약에 의지해 버티고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탓에 직장생활은 업무도 못내고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영미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수급비로는 살림과 약값도 부족해서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신 본인을 원망하며 손녀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 설에는 영미와 할머니가 여느집처럼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명절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공부방에서 온 편지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명절준비를 따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이웃가정에 가래떡, 쇠고기, 멸치, 햄 등을 담은 바구니를 전달함으로써 설날 아침 따뜻한 떡국을 끓여먹으며 가족끼리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5인 가정에서 서너번은 넉넉히 끓여낼 수 있는 쇠고기 양지머리와 완도산 멸치, 가래떡과 햄이 들어있는 바구니에 성금을 후원해 준 후원자의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함께 넣은 후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매듭을 지으면 하나의 떡국 바구니가 완성된다. 1구좌당 3만원씩 성금을 모아 설날 즈음하여 떡국거리가 담긴 바구니를 만들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전달한다.

**성금모금에 참여한 후원자 438명,
외환은행나눔재단, 스위스재보험 등 기업 참여도**

지난 2월 12일(목)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2015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는 이희호 명예회장과 성금 후원자,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떡국 재료를 가득 담은 3,000개의 바구니를 포장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3천만원의 성금을 후원했고, GKL사회공헌재단, 네

이버주식회사에서 1천만원, 스위스재보험회사에서도 900여 만원의 성금을 후원했다. CJ 제일제당에서도 스왑 3,000개를 후원해 떡국 바구니가 한층 꾸밈해졌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1998년 시작해 한해도 거르지 않고 명절이 더 서럽고 쓸쓸한 가정에 사랑의 떡



2015 사랑의 떡국 나누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등〉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 고양,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 〈지방〉 강원(춘천), 인천(계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경남(김해, 창원), 경북(경산, 구미, 상주, 예천, 칠곡, 포항), 광주(광산구, 남구), 대구(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대전(동구, 대덕구), 부산(남구, 연제구), 울산(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전남(목포, 무안), 전북(남원, 완주, 전주, 논산) 충남(논산, 보령, 천안, 아산, 예산), 충북(영동)
 - 〈기관〉 강화우리마을, 김동무교회, 김포능동교회, 꿈연아그림홈가정,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원동교회, 두레방, 드림트리(거리의천사들), 반디청소년공부방, 베다니노인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은행골우리집, 새비전지역아동센터,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 아모그린텍장미가정, 에덴지역아동센터, 와락, 외성교회,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정동제일교회, 정릉4동복지협의회, 정신대대책협의회,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한빛교회구리구리공부방, 한터, 햇살사회복지회, 효도본부노인복지센터

-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조손가정에〉
- 〈강원〉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 〈경기〉 1318해피존해밀·동안·비전스쿨·살롬·한무리·한숲지역아동센터
 - 〈광주〉 거자씨·광천·나래·다사랑·다솜·무지개·문흥·봉선·비전스쿨·사직·소망·에덴·영미·좋은친구·참사랑·천재·파란꿈·평동·포도나무·꽃꽃친구·한울·행운지역아동센터
 - 〈대전〉 극동·대전·대청·도마·만두레·목상·빛나는·서광·서대전·섬나의집·소망·오정·우리·은혜·정금·주보라·중부·푸른솔·한밭지역아동센터
 - 〈서울〉 갈현·그루터기·새날·어린이나라·우리들공부방·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어린이교실·사랑의공부방·진관지역아동센터
 - 〈인천〉 계양기파·구월·드림·랜턴트·만수행복·보이스·석남·선민아이들세상·신나는교실·영산·웃음꽃·입학·예향꿈터·청담·청솔·하늘씨앗·효성사랑·효성·희망남구지역아동센터
 - 〈전남〉 꿈나무·동그라미·발포·안양·파랑새지역아동센터
 - 〈전북〉 꿈터·남중·덕진·동산·무지개·삼성·샘솟는·세울·솔빛·신동·옥아·유레카·임마누엘·정다운·춘포·평화디딤돌·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 〈충남〉 삼산지역아동센터

국 바구니를 전달해 왔다.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위해 성금 모금에 참여한 후원자 438명, 51개 단체가 함께 해 올해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떡국나누기
 2월 24일에는 2015 사랑의 떡국나누기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애써주시고 도와주신 준비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김성재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꺼이 참여해 주신 덕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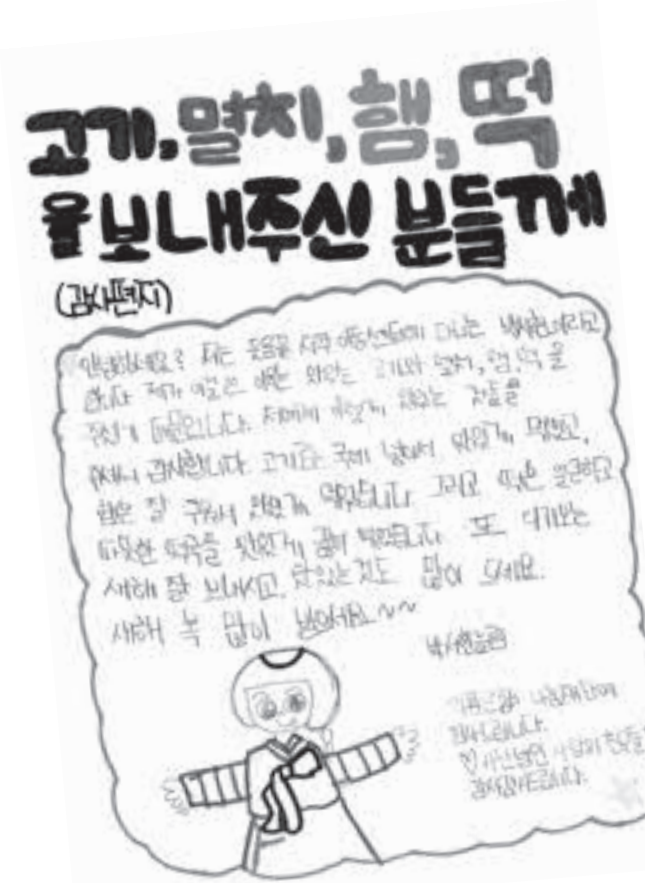
3,000개의 떡국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모금이 달성되었고 무사히 잘 전달할 수 있었다며 2015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5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평화박물관 • CJ제일제당 • GKL사회공헌재단 • 강화우리마을 • 네이버주식회사 • 농협유통창동 • 더맑은내과클리닉 • 베다니집 부스르기사랑나눔회 • 북악새마을금고 •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 삼삼복지재단 • 샘터봉사회 • 셋별회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성일교회 솔엔터테이먼트 • 송월경복상회 • 수원온누리사회선교부 • 스위스재보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한은행 동소문지점 • 씨제이나눔재단 에스더기도선교회 • 오세민외과 • 외환은행 나눔재단 • 유라 • 일촌공동체노원센터 • 정동제일교회 • 정릉4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주)다다 (주)대일텍스타일 • (주)보미엔지니어링 • (주)보미종합건설 • (주)삼지엔지니어링 • (주)신즈디자인하우스 • (주)인재교육 • 주식회사 W&P 주식회사 길 • 주식회사 싸앤에이논술 • (주)종이나나라 • (주)크리스패션 • (주)한국카본 • (주)효성 • 청수실업(주) • 평택교회 청년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일정화(주) • 한전부녀회 • 호이트한국 • 흥천사

강금옥 • 강명선 • 강민혜 • 강병길 • 강봉순 • 강중희 • 고경애 • 고재득 • 공유석 • 공향동 • 광상준 • 구종태 • 구춘모 • 구현자 • 권남인 • 권미경 • 권순희 권영선 • 권오금 • 권재연 • 권향엽 • 김 현 • 김경남 • 김경돈 • 김경숙 • 김경영 • 김경희 • 김광애 • 김기순 • 김남연 • 김내현 • 김도균 • 김동훈 • 김미경 김보경 • 김봉실 • 김부단 • 김부용 • 김상미 • 김상수 • 김상희 • 김선희 • 김성숙 • 김성애 • 김성우 • 김성재 • 김성주 • 김소영 • 김수옥 • 김수정 • 김숙희 김순옥 • 김순자 • 김시영 • 김신애 • 김애란 • 김양심 • 김영범 • 김영숙 • 김영옥 • 김영자 • 김영중 • 김옥라 • 김옥숙 • 김옥인 • 김용택 • 김월라 • 김윤석 김윤영 • 김윤자 • 김윤희 • 김은애 • 김은주 • 김은채 • 김은주 • 김의숙 • 김의신 • 김인규 • 김인섭 • 김정규 • 김정미 • 김정수 • 김정순 • 김정애 • 김정연 김정원 • 김정자 • 김정현 • 김중숙 • 김주원 • 김주일 • 김주희 • 김준우 • 김지연 • 김진규 • 김진수 • 김찬기 • 김창규 • 김춘례 • 김태연 • 김택우 • 김해준 김행자 • 김향신 • 김혁희 • 김현숙 • 김현자 • 김현중 • 김형순 • 김혜식 • 김홍진 • 김희정 • 나선길 • 나정웅 • 남경숙 • 남기영 • 남은미 • 남정수 • 류원하 마영자 • 명현지 • 문성근 • 민근희 • 민선희 • 민웅기 • 민필식 • 박 민 • 박갑영 • 박경원 • 박미현 • 박성연 • 박순애 • 박순이 • 박신애 • 박영빈 • 박용옥 박유경 • 박윤희 • 박은경 • 박재용 • 박재형 • 박종렬 • 박종인 • 박준규 • 박필규 • 박현미 • 박현호 • 박혜숙 • 박희경 • 배정은 • 백광욱 • 백기숙 • 백수아 백주현 • 변철호 • 서경관 • 서명선 • 서명자 • 서부석 • 서영임 • 서은영 • 서현주 • 서화영 • 서희정 • 신연남 • 설 훈 • 성수경 • 성인숙 • 송기목 • 송미숙 송민진 • 송안숙 • 송양자 • 송태순 • 신갑순 • 신문경 • 신선련 • 신연숙 • 신은주 • 신정숙 • 신혜연 • 신혜진 • 안병원 • 안성자 • 안정훈 • 안춘자 • 양경숙 양계남 • 엄정숙 • 엄기철 • 엄명화 • 오경선 • 오계옥 • 오수경 • 오승희 • 오은경 • 오혜영 • 우순덕 • 원경희 • 원종환 • 유부귀 • 유설자 • 유순동 • 유육규 유은숙 • 유춘희 • 윤동호 • 윤명숙 • 윤상혁 • 윤상훈 • 윤서석 • 윤성환 • 윤순희 • 윤신자 • 유우식 • 윤정기 • 윤춘희 • 윤효진 • 이 옥 • 이경림 • 이경숙 이경화 • 이광자 • 이권우 • 이근미 • 이근순 • 이길선 • 이길순 • 이나영 • 이대정 • 이동진 • 이두래 • 이명경 • 이문희 • 이미경 • 이보은 • 이봉권 • 이상룡 이상민 • 이상화 • 이석현 • 이선순 • 이선우 • 이선형 • 이성복 • 이성욱 • 이성원 • 이성주 • 이성희 • 이수연 • 이순례 • 이아정 • 이영민 • 이영숙 • 이영순 이영아 • 이완지 • 이완형 • 이원련 • 이웅성 • 이은주 • 이원희 • 이원원 • 이은경 • 이은심 • 이은림 • 이인화 • 이재용 • 이재은 • 이정순 • 이정옥 • 이정원 이정자 • 이종만 • 이종영 • 이종욱 • 이주학 • 이지원 • 이지은 • 이진규 • 이진웅 • 이진우 • 이채운 • 이태란 • 이태동 • 이현희 • 이현주 • 이호재 • 이화옥 이화자 • 이희호 • 임내현 • 임명자 • 임영숙 • 임은옥 • 장순량 • 장정숙 • 장형숙 • 전길환 • 전승규 • 전영숙 • 전해영 • 정기화 • 정대련 • 정민수 • 정복동 정성미 • 정수연 • 정순자 • 정은희 • 정인아 • 정재희 • 정혜인 • 조민자 • 조삼현 • 조성숙 • 조성자 • 조아라 • 조영순 • 조영민 • 조우영 • 조유민 조은주 • 조인순 • 조일래 • 조재민 • 조현정 • 주민자 • 주성찬 • 주영숙 • 지동환 • 지소운 • 지영선 • 지한주 • 차경애 • 차성수 • 채화석 • 천영옥 • 최 은 최귀덕 • 최덕생 • 최미선 • 최민희 • 최병분 • 최설화 • 최숙자 • 최순자 • 최순희 • 최애경 • 최영배 • 최영수 • 최윤영 • 최정돈 • 최정수 • 최정순 • 최준영 최준호 • 최지은 • 최향원 • 추찬순 • 탁동현 • 하명희 • 하선주 • 하은영 • 한경자 • 한명섭 • 한명욱 • 한선희 • 한순애 • 한인애 • 한현욱 • 한홍식 • 허남근 홍근표 • 홍기원 • 홍성례 • 홍채민 • 홍채유 • 홍채은 • 홍채효 • 황서경 • 황순택 • 황순희 • Lucao Chun • Richard Chun • Stephen Chun



고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꽃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김금비입니다. 후원해준 고기, 떡, 햄, 멸치 잘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떡국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챙겨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 웃음꽃지역아동센터 김금비

사랑의 친구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떡국바구니를 받은 이승진이에요. 떡이랑 멸치랑 고기랑 스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같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요. 사랑의 친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덕진지역아동센터 이승진



겨울 청태산에 올려퍼진 Let it go ♪♪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1박2일 영어캠프



사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어 영어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영어수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2007년부터 '미래회'가 후원해 왔다. 3개월간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이 결정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지난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262개 기관 1,631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지난 2월 26일에는 한해 동안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청태산에서 1박2일의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영어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맞게 된 6학년에서부

터 이제 영어공부를 시작한지 몇개월 되지않는 저학년까지 연령도 다양하다.

노래와 연극, 영어소개 등을 통해 그동안 익힌 영어실력을 선보이고 다른 이들의 발표에는 귀를 기울이며 집중한다. 캠프의 마지막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열창한 "Let It Go".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과 소리를 합쳐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노래로 마무리된 영어 캠프의 첫날밤이었다.

이튿날에는 강원도의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 청태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눈 쌓인 숲을 탐험하며 풀피리도 만들어 붙어보는 숲체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물놀이를 하루를 보냈다.

나는 이번 영어캠프를 포함해서 세 번 캠프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아쉬웠다. 이번 캠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장기자랑 할 때 친구가 Marry You 노래를 하는데 끝에서 재미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다른 센터 아이들도 웃었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나는 세 번째 올라간 무대인데도 두근두근 긴장이 되었다. 드디어 노래가 끝나고 인사를 하니깐 긴장이 풀렸다. 이번 캠프에서 아쉬웠던 점은 좀더 연습을 해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휘닉스파크 수영장에서 게임을 했는데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 몸은 피곤했지만, 아쉬웠다. 다음에 참가하는 후배들에게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말하고 싶다.

- 역곡지역아동센터 나민혁

영어캠프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저는 Kang So-Jung입니다. 저희 한사랑지역아동센터를 영어캠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이어서 공기가 좋았어요. 숲오감 체험도 재미있고 숙소도 좋았어요. 특히 '워터파크'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저는 캠프를 처음 갔는데 꼭 참석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조금 떨렸지만 영어로 말하게 되어서 기뻐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도 캠프에 갈게요. 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강소정



1년간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어린이들의 영어 캠프 모습. 캠프 둘째날에는 숲체험과 워터파크에서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만들었다.



미래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학력격차가 크게 일어나는 과목 영어.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는 저소득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는 어려운 과목이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2007년부터 미래회(회장 박지영)의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놀이와 도구를 이용한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지원해왔다.

자원봉사자가 일주일에 1~2회 공부방을 방문해 수업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춘 교과서와 시청각교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3개월간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3개월간 지원 후 평가 통해 연속 지원

2014년 12월 18일에는 정동제일교회에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가회가 진행됐다.

평가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진행에 필요한 다양한 수업 방식, 어린이들의 실력 향상 사례 등을 공유하고, 3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17개 기관의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졸업하며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수업하면서 좋은 추억도 많았고 선생님과 정이 들었는데 수업이 종료되어 너무 아쉽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수업할 때 영어 단어 시험도 많이 봐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실력이 향상되어 기분이 좋았다. 영어게임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신기하다. 앞으로도 영어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씨앗지역아동센터 이지원

제18차 정기총회 열려

상반기중 예정되어 있는 북한어린이 돕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제 35차 정기 이사회와 제 18차 정기총회가 2월 24일(화)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는 김성재, 김순자, 노영혜, 성인숙, 이순례, 이종욱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 및 회계결산,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이사회에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사랑의 친구들

임직원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에 이어 2014년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승인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들의 연임과 새로이 김성애 이사를 선임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 이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하신 이사들과 새로이 책임을 맡아준 김성애 이사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5년에도 그동안 후원해주신 후원자와 기업, 단체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로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사랑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하며 상반기중에는 이회호 명예회장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북한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사랑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 ▶연합캠프 공모사업 ▶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교육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등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사업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다.

■ 종이문화재단에서 후원한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프로그램 1~3급수 자격증 획득한 어린이들에게 수료증과 메달 수여

2015년 2월 6일, 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이 후원하는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교육' 수료식이 전농방과후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교육은 2014년 3월 ~2015년 1월까지 반석방과후교실, 전농방과후교실, 천음방과후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38명의 어린이들은 이날 메달과 수료증을 받았다.

종이문화재단에서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1~3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를 후원했다. 2015년에도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사랑의 간식 나누기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간식나누기'. 국제선 항공기에 실렸다가 개봉되지 않고 나오는 스낵, 초콜릿, 라면, 주스 등을 모아 6개월 단위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년도에는 11개 기관 362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도 3개 기관 124명의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누고 있다.

■ 2014년 지원기관

겨자씨지역아동센터, 다솜지역아동센터,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샘물지역아동센터, 운암지역아동센터, 직산지역아동센터, 진관지역아동센터,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풀꽃친구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 2015년 지원기관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샘물지역아동센터, 진관지역아동센터

■ 개별아동 장학금 후원

개인 후원자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의 따뜻한 만남. 개별아동후원 장학금은 후원자가 어린이에게 매일 5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린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지, 생필품 및 학용품 등을 구입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교육이나 치료에 사용한다.

2015년 들어 미래회에서 10명의 어린이와 결연을 맺었다. 또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인 남경숙씨가 속해 있는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버는 힐스에서 2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기로 한데 이어 김지연 후원자가 새로이 함께 해 모두 13명의 후원자와 2개의 단체가 31명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 후원해 주시는 분들

김경란, 김경희, 김병준, 김수정, 김지연, 김철웅, 김흥기, 노영혜, 남은미, 성현정, 신선련, 인재근, 정명화, 최병권, 최병철, 미래희,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버는 힐스

안녕하세요. 다솜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원영민입니다.
저에게 옷과 멋진 신발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끗한 옷과 신발, 가방, 내복을 입어서 따뜻합니다.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저는 행복한 아이인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아동센터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래요. 고맙습니다.
원영민 올림

- 다솜지역아동센터 원영민

■ 외환은행 나눔재단 후원 - 문화초청 행사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문화행사에 초대해 70명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 연극 - 백마강 달밤에, 메밀꽃 필무렵 (새벽지역아동센터,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8명)
- ★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마을속작은학교, 새벽공부방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7명)
- ★ 국립중앙박물관 송년음악회 (함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명)



만드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모여져 세상 단 하나의 목도리 완성

지난해 완성된 목도리 3,600여점은 올 상반기중 북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정성스레 직접 뜨 목도리를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완성된 목도리는 유진벨재단을 통해 2011년 11월과 2012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총 4,300점을 전달하였으며 전달된 목도리는 북한의 11개 결핵병원의 환자와 어린이 가정에 지원되었다.

목도리 뜨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2014년 한해 동안 28개의 단체와 1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북한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완성된 목도리는 올해 4월~5월경 사랑의 친구들이



희호 명예회장의 방북에 맞춰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목도리 뜨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후원금은 1만원. 털실, 대바늘, 목도리 완성 방법이 적힌 안내문이 하나의 키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뜨개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영상을 참고하여 손쉽게 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랑의 목도리 하나를 완성해 사무국으로 다시 보내면 자원봉사 활동 4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확인증도 발급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랑의 친구들로 문의하면 된다. (734-4945~7)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체]

미래희 • 삼성토탈주식회사 • 석곡지역아동센터 • 영신유치원 • 탄현중학교 2학년 3반 • 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봉~스쿨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강원연합회, 경기연합회, 경기남연합회, 경북연합회, 구미연합회, 군산연합회, 대전연합회, 서울남연합회, 서울동연합회, 서울북연합회, 익산연합회, 인천연합회, 전북연합회, 전북동연합회, 충남연합회)
삼성SDI(수원, 의왕, 구미, 청주, 여수) • 공능교회 • 남원제일교회 • 동부교회

[개인]

강경숙 • 강애은 • 강혜정 • 구교연 • 권도영 • 권수정 • 권재은 • 김가빈 • 김귀자 • 김규리 • 김노아 • 김명희 • 김선웅 • 김수민 • 김양남 • 김에원 • 김은유
김은주 • 김은희 • 김일인 • 김정애 • 김주희 • 김창일 • 김태자 • 김학복 • 김한별 • 김향미 • 김현자 • 김혜영 • 김희수 • 류연중 • 민동엽 • 박서인 • 박수자
박숙현 • 박신규 • 박예린 • 박은경 • 박은석 • 박재숙 • 박재원 • 박지연 • 박혜교 • 박효민 • 박희경 • 박희양 • 배은영 • 백성순 • 백소희 • 백진숙 • 서종심
서채현 • 성낙진 • 성인숙 • 성지인 • 손옥임 • 손정숙 • 손현주 • 송명림 • 신명자 • 심수정 • 안봉숙 • 양예림 • 양민자 • 오기운 • 오수경 • 오준환 • 오현서
우애숙 • 우지민 • 원현정 • 유지민 • 유지호 • 윤주영 • 이가현 • 이다연 • 이명희 • 이미경 • 이민주 • 이성림 • 이수연 • 이승섭 • 이아정 • 이애숙 • 이영주
이유진 • 이은범 • 이은진 • 이정순 • 이정식 • 이정원 • 이종숙 • 이주호 • 이지예 • 이지선 • 이지우 • 이진용 • 이춘형 • 이태인 • 이현영 • 이현주 • 이홍숙
이희호 • 인재근 • 임근아 • 임동수 • 임사랑 • 임영숙 • 임옥자 • 임한나 • 임한솔 • 장민지 • 장보원 • 전수민 • 전영주 • 전제권 • 전태선 • 전현준 • 전형재
정영순 • 정예지 • 정유석 • 정인용 • 정주형 • 정춘자 • 정호진 • 정효진 • 조유진 • 주민성 • 천현서 • 최준희 • 최준원 • 최태현 • 최한실 • 홍은숙 • 홍지완
황민지 • 황주원 • 현수지

질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는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바자 통해 마련된 기금은 어려운 어린이들의 희망 찾기에 전액 사용

사랑의 친구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해마다 준비 해온 열일곱번째 바자가 지난 해 10월 18~19일 이 화요일 류관순기념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바자를 위해 국내의 85개 업체에서 물품을 후원 하거나 현장 판매를 통한 기금 마련에 함께 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여성들의 모임인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조은옥)의 회원 80여명도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아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먹거리장터와 아나바다코너인 코끼리장터, 신안천일염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코너도 함께 열려 바자 현장을 찾은 이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어린이들의 한끼 식사값인 4천원에 판매하는 행운권 추첨에도 1등에 1백만원 외환은행 예금증서를 비롯해 기업체와 단체의 경품 후원이 이어졌고, 사회저명인사들이 기증한 물품은 경매를 통해 기금으로 적립되었다.

이들간 열린 바자에는 43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137,178,000원의 기금을 모았다. 바자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의 내일을 찾아 바로설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11월 4일에는 바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준비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자 보고 및 감사모임을 가졌다. 김성재 회장은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셨기에 따뜻한 결실을 거두고 잘 마무리 되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5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은
10월 17일~18일
이화여고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명예회장이 바자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 다양한 경품이 걸려있는 행운권 추첨의 시간.
글로벌어린이재단의 민윤숙 바자위원장이 행운권을 뽑고 있다.
3. 저명인사들의 기증품 경매를 위해 방승인 최광기 씨가 진행을 맡아주었다.



바자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물품기증** (사)전통문화연구원, (사)한국희망재단, 구정치과, 국제통상연구소 공정무역마을공동체협동조합, 그로비주,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전기(주), 김병원, 김근태재단, 노아의집, 농민신문사, 대선제분(주), 대진도기, 드림교회, 람바자, 로템나무, 보배손, 보우실업, 봉하모임, 상토회(상명초10회졸업생모임), 선표식품(주), 성북한마을봉사회, 소야코리아, 송학식품, 스칼라, 심슨, 씨제이제일제당(주), 아태여성아카데미, 아하바 브라카, 애경산업(주), 애티미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오온환부티크, 외환은행 나눔재단, 유한킴벌리, 이끌림, 이민자컬렉션, 이종란메이크업예술학원, 이진옥천연염색공방, 이플란치과, 인사모, 장수회관, 전남 영암군청, 정을두레, 종이문화재단, (주)국순당, (주)까사미아, (주)농심, (주)농협창동농산물유통센터, (주)대풍, (주)더스킨컴퍼니, (주)동원F&B, (주)두산, (주)메디컬그룹 베스티안, (주)미스자콜렉션, (주)빙그레, (주)삼송식품, (주)상우약기(세고비아), 주식회사 라비도, (주)신원엔에스, (주)실버텍스, (주)영창레포즈, (주)웅진생크림, (주)유라, (주)유유제약, (주)제이아이콜렉션, (주)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주)크리스패션(PING), (주)클리오, (주)한성에프앤씨, (주)한아인터내셔널(양스모드), (주)한영랑기루, 채빛퀸진, 차림패션, 충남떡방앗간, 한국콜마(주), 한맘기획, 행남자기, BASIC HOUSE, CJ E&M Center, CJ나눔재단, L&C 코리아(해나), Thanks and vision
- 개인물품 기증** 구준모, 권재진, 고인숙, 김성애, 김성재, 김순자, 김영학, 박원순, 박희양, 배신숙, 성인숙, 신성주, 신연숙, 이순례, 이어령, 이인호, 이종옥, 이해찬, 이형근, 이희호, 인재근, 하희숙, 황순안
- 성금 기부** 김익신, 남궁진, 손학래, 심치선, 원명재, 윤우정, 이승근, 이영호, 이윤, 이지원, 한서경, 한용외, 홍근표, 홍라희, 5.17가족,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농협은행(주) 고양시지부, 명지전문대학, 목우회, 서울제일교회, 외환은행 나눔재단,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 행운권 구입** 강반석, 강해남, 고정애, 박선례, 구준모, 구현자, 김경애, 김경영, 김경희, 김광오, 김보경, 김부단, 김설용, 김성애, 김성재, 김숙희, 김순자, 김영미, 김은주, 김의숙, 김정규, 김정열, 김주희, 김한순, 김향미, 김홍진, 나정용, 남은미, 노영혜, 노윤화, 문정순, 민금의, 민인식, 민조희, 박신애, 박은경, 박정희, 박종렬, 박주연, 박필규, 박희경, 박희양, 백경희, 백기숙, 서명자, 서정혜, 성인숙, 송수희, 송양자, 양경숙, 유승희, 윤신자, 이경림, 이계윤, 이규자, 이미경, 이상순, 이상희, 이선순, 이숙진, 이순례, 이신재, 이아정, 이모너, 이완행, 이정원, 이정자, 이정희, 이종옥, 이진용, 이해동, 인재근, 임명자, 장수옥, 장순량, 장영자, 장일선, 정수연, 정재희, 정정희, 정진숙, 정희래, 조영민, 조윤자, 조정숙, 최규재, 하명희, 현정현, 황순안, Richard Chun, Stephen Chun, Lucas Chun, 3.1여성동지회, 에스더기도선교회, 이끌림
(이름을 밝히지 않고 행운권을 구입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GCF 회원들 2014 바자 마치고 이희호 명예회장 방문

공부방 어린이들과 즐거운 만남도 가져

글로벌어린이재단(GCF, 총 회장 조은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의 모임으로 미국과 캐나다, 홍콩, 일본에 20개의 지부를 두고 4,5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단체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캄보디아, 몽고, 모잠비크, 네팔, 페루,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터키 등 30개가 넘는 국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왔고, 사랑의 친구들을 통해 한국의 어린이를 돕는 일에도 앞장서왔다.



2014 바자 한마당에 참여한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 80명은 바자를 마치고 10월 20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이희호 명예회장과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호 명예회장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한해도 빠짐없이 바자에 참여하는 글로벌어린이재단과 회원들의 정열과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글로벌어린이재단에서는 이희호 명예회장에게 감사장과 꽃화분을 전달했다.

도서관 방문 후에는 인천의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 지역아동센터 세 곳을 방문해 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같은 공부방을 몇 년째 방문하는 회원들도 있다. 공부방을 방문한 회원들은 어린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거나 어린이들과 함께 액자와 화분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주식회사 상우악기, 지역아동센터에 세고비아 기타 82대 후원

세고비아 기타로 유명한 악기 제조회사 주식회사 상우악기는 2009년부터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기타를 후원해왔다. 2014년 12월, 형편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기타를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악기가 기타이다.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 기타 지원을 신청받은 결과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기타를 돌려가면서 연습하고 있는 센터, 더 이상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낡은 기타로 배우고 있는 센터, 기타수업을 운영하고 싶지만 악기 구입이 어려워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센터 등 신청이 쇄도했다.

“현재 기타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아동은 7명인데 기타는 2대뿐이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연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가 너무나 필요한 상태입니다. 꼭! 기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기타를 배워서 노인정, 복지관 등에 봉사활동을 다닐 계획입니다. 멋지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 갈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하혜영

상우악기 측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지원수량을 30대에서 82대로 늘리고 크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구성해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친구들로 가져와 전해 주었다. 이날 후원받은 1,150만원 상당의 기타 82대는 12월 18일~23일 17개 지역아동센터에 골고루 지원했다.



(지원기관)

갈현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문흥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세움터지역아동센터, 슬로몬지역아동센터, 애플지역아동센터,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영순지역아동센터, 영현비전지역아동센터, 전농방과후교실, 천재지역아동센터, 풀코스모스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 2014년 12월 1일 / 유희영 씨가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품과 의류를 기증했다. 후원받은 사무용품은 원진녹색병원과 천안지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연합해 만든 사단법인 천안꿈 사무실에 지원했다.

■ 2014년 12월 17일 / 성낙진 씨가 어린이 건강음료 6박스를 기증했다. 후원받은 음료는 서울의 진관지역아동센터, 천안의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샘물지역아동센터, 직산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지원했다.

■ 2015년 1월 13일 / 형편이 어려운 공부방 어린이 1명과 결연하여 매달 5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김경희 씨는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전해달라며 도서 29권을 기증했다. 이 책은 후원의 자녀들이 읽던 책으로 김경희씨가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는 국어 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이다.



사랑의 친구들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후원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형	김병준	김완기	김홍기	박 영	박정희	손다혜	오차환	이은지	정우상	최병철	황경민
경욱호	김복선	김용주	김홍배	박경숙	박종대	송도순	유달리	이정열	정정례	최소영	황정희
김 솔	김상우	김용현	김홍익	박동찬	박종렬	송석호	윤상현	이정원	조기제	최지은	
김경돈	김성애	김인섭	김홍주	박상지	박진희	송요선	윤장순	이종옥	조남만	최해경	
김경란	김성재	김장곤	김홍진	박상호	박필규	신선련	윤현봉	이지성	조남철	최해선	
김경영	김소민	김정국	남국진	박어상	박희경	심치선	이계호	이진웅	조성민	하원호	
김경희	김수정	김정달	남기현	박용상	방병찬	안종길	이기정	이철우	조주영	하운태	
김교은	김순자	김종량	남은미	박우용	배민영	안창민	이석태	인재근	주영숙	한미향	
김남훈	김시은	김지연	남창우	박윤희	배장훈	여성숙	이순례	임지선	차수연	허 장	
김도균	김연환	김지은	노영혜	박정서	배주영	오경임	이승희	임형국	차순걸	홍소일	
김문규	김영남	김철웅	노윤화	박정해	성인숙	오영란	이영옥	임형균	최동균	홍진아	
김미애	김영미	김한정	노지혜	박정훈	성현정	오재환	이은정	정명화	최병권	홍진표	

(명)삼하사, (주)연합뉴스, (주)지오마케팅, (주)F&F, CAFE LIMI,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글로벌어린이재단, 미래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버논힐스, 애니북스, 차은즈카페, 한양대, 해피빈,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도서, 비디오테이프)
김경희(도서)
성낙진(음료)
유희영(의류, 사무집기)
조남만(백화점 상품권)
CJ나눔재단(스팸)
대한항공(기내식)
상우악기(기타)
씨제이제일제당(스팸)

아시아나항공(기내식)
외환은행 나눔재단(문화공연 초청)
외환은행 나눔재단(우표)
유라(의류)
이스타항공(항공권)
종이문화재단(어린이 종이접기 자격증 교육)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나눔의 숲 체험교실)
헤렌(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백조의 호수> 초청)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 : 734-4945 ~ 7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길 10 (옥인동 47-483)